

공동체, 예수님과 동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

함께 잠을 자고 여행을 하고, 일하셨다. 그리고 함께 쉬셨고 늘 함께 대화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대할 수 있었고 그의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다.

주님이 제자들과 동거한 이유는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였다. 기도를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하시는 삶을 보면서 체득해왔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즉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몸소 보았다.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귀신들린 자와 같이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제자들은 가장 가까워서 체험하였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표본이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것처럼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영향을 받기 보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과 동거의 삶이 그 비결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동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제자들로 만들 수 있었다. 공동체적인 삶의 진수와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체적인 인격교육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요,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이 택하신 교육방법이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이처럼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공부가 무미건조하고 설교가 따분하기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삶과 거리가 먼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피상적이기만 하고 세상적인 교제와 차별이 없는 세속적인 대화로만 일관되는 허무한 관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형제들간에 임재하는 성령의 교통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과 승리와 자부심보다도 패배와 타협으로 일관된 사람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와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적인 삶을 기초로 한 신앙교육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삶과 지식이 갈등 없이 우리의 생활과 삶에 자연스럽게 배이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신앙적인 지식을 삶에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신자의 공동생활은 자신이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서 보게 된다. 이것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다. 나 자신도 모

르던 고통과 부끄러움들이 다른 지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때 깊은 인생의 치유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을 통해서 진하게 체험하게 된다. 성숙한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존하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여름 수련회가 가까워온다. 여름 수련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공동체적인 삶을 맛보는 데 있다. 수련회가 우리의 생활에 것처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이유는 함께 거하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맛만을 볼 뿐이다.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온 후 며칠만 흘러가면 원상태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동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은 가정이 신앙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신앙 선배의 도움을 받아 교역자의 집에서 함께 몇 달이라도 살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건전한 공동체를 방문하여 그 삶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석금호/기독교 공동체 쉼터 대표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